

일본 면방 각사의 신상품 창조 솜씨들(9)

다이와보의 링, OE 방적 솜씨 - 엄선된 원면으로 차별화 실 개발

다이와보는 방적 자회사인 다이와보 마티어리얼즈의 차별화 실을 생산하고 있는 링 정방기를 중심으로 한 마이즈루(舞鶴) 공장과 OE 정방기를 주로 한 와카야마(和歌山)공장이 있다.

2006년 춘하절을 위하여는 “프레스티지 코튼(Prestage cotton)” 시리즈로서 면만을 사용하는 상품군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인도의 최고급 원면 “세람 수빈”, 이집트 초장면 “미타피”와 “수피마(Supima) 면”의 3종류를 엄선하고, 이들 원면의 섬유장, 섬도 등의 물리적 데이터를 다시 수집하여, 단일 원면에서 최상급 실을 만들고 있다. 링 방적사로서의 상품화가 중심이지만 OE사로도 대응하고 있다.

링 방적사로는 세번수화를 추진하여, 2005년에는 새로 코어 스펀 얀 “큐론”을 발전시킨 “큐론 100”, “큐론 80”을 개발하였으며, 이 숫자들은 실의 번수를 나타낸다. 이제까지 30수급의 중번수만을 생산하였는데, 정방기를 개조하여 세번수화에 성공하였다. 물론 그 정도의 세번수를 방적하려면 면화도 엄선할 필요가 있다. “큐론 100”은 이집트 초장면인 “기자”를 “큐론 80”은 초장면 클래스의 원면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120수까지 방적하는 기술도 개발하였다.

한편 OE사에서는 이제까지의 OE사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야한다는 컨셉으로 개발한 잔털이 적고, 소프트감이나 당김새나 차진 맛이 뛰어난 “에어 컴팩트”를 시리즈화하였다. 새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강연, 얼룩 실,

면·리넨 혼방, 면·레이온 혼방 또는 레이온 100%의 4종류이다. 레이온·실크 혼방 등도 시방 중이다. 리넨 혼방은 40% 혼방이 중심이며, 50% 혼방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리넨 100%의 “에어 컴팩트” 개발도 현재 개발 중이다. ♣